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4년 브라질 월드컵대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2차전 한국-레바논 경기. 후반 3분 김보경이 추가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영 “병역 꼭 이행”

런던올림픽 흥명보호 승선했 듯

병역기피 논란을 빚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박주영(27·아스널)이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병역의무를 꼭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영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사랑해준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에 입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선수로 뛰던 모나코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 병역연기를 한 것은 병역 면제나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박주영은 “유럽에서 3년여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선진축구를 많이 배우게 됐고 국위를 선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 병역연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연장허가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은둔한 것에 대해선 “병무청과 언론에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며 “직접 의무를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주선한 흥명보호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7일 시리아와의 평가전이 끝나고 박주영과 가슴을 열고 얘기했다”며 런던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박주영을 외일드 카드로 넣었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쿠바 ‘위기의 폴란드’ 구했다

러시아와 1-1 무승부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은 무위로 끝났다.

13일 새벽(한국시간) 바르샤바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2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2) A조 2차전 경기에서 러시아와 폴란드는 치열한 공방 끝에 1-1로 비겼다.

‘바르샤바 전투’로 불릴만큼 관심을 모았던 이날 경기에서 러시아의 ‘떠오르는 별’ 자코예프는 전반 37분 아르사빈이 올린 정교한 프리킥을 감각적인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선제골을 뽑았다. 체코전 2골에 이어 2경기 3골로 득점 선수.

하지만 폴란드엔 캡틴 쿠바(Kuba·아쿠프 브와슈치크)의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에 득점된 이름이 있었다.

쿠바는 후반 11분 오브라니야크의 스투패스를 이어받아 한 번 차고나간 뒤 불협한 왼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으며 폴란드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러시아는 이날 무승부로 승점 4점을 챙겨 A조 선두 자리를 지켰고, 2무를 기록한 폴란드는 승점 2점으로 3위에 그쳐 체코와의 다음 경기에 8강행의 사활을 걸게 됐다.

이에 앞서 폴란드 브로츠와프 시립 경기장에서 열린 같은 조 경기에서는 체코가 그리스를 2-1로 꺾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겨 8강행의 희망을 살렸다.

체코는 그리스 수비가 미처 정돈되지 않은 전반 3분과 6분에 두 골을 뽑았다. 이라체크의 슛은 골키퍼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필라르스 중 두명의 그리스 수비수 사이에서 추가골을 밀어 넣었다.

그리스는 후반 6분 사마라스가 왼쪽 중앙에서 길게 찬 공을 체코의 수문장 체호가 어이없는 실수로 놓치자 게카스가 그대로 왼발로 차넣어 1골을 만회했다. 체코가 슈리를 놓쳤다면 체호는 ‘역적’으로 몰릴 뻔 했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승점 6’ 독주 ... 우즈벱 원정 발걸음 가볍다

■ 한국,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 향후 일정

10월 이란 원정경기 본선 진출 분수령

최강희호(號)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첫 두 경기를 연속 승리로 장식함에 따라 8회 연속 본선으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서는 A, B조로 나뉜 각 5팀이 홈과 원정으로 한 조로 묶인 다른 4팀과 총 8경기를 치른다.

각 경기에서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의 승점을 쌓아 순위가 매겨진다.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팀은 조 2위까지다.

A조에 속한 한국은 카타르, 레바논과 각각 원정경기 1차레씩 대결해 대승을 거두고 승점 6을 따냈다.

카타르전에서 4골, 레바논전에서 3골을 터뜨리고 카타르에만 1골을 내준 한국은 승점은 물론 골 득실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해 조 1위를 굳건히 지켰다.

1승씩 챙겼던 이란과 카타르가 13일 새벽 테헤란에서 치른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해 향후 순위 싸움에서 한국에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A조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인 이란과의 승점 차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골 득실에서도 이란은 이번 카타르와의 2

차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함에 따라 한국이 5골이나 앞서게 됐다.

한국의 다음 상대는 9월11일 원정 경기로 맞붙는 우즈벱키스탄이다. 아직 승수를 올리지 못한 우즈벱키스탄은 이란(1승1무), 카타르(1승1무1패)에 뒤진 조 4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이어 10월16일 본선 진출의 분수령이 될 이란 원정 경기를 끝으로 1라운드 일정을 마무리한다. A조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은 11월14일 예정된 이란-우즈벱키스탄, 카타르-레바논 경기다.

각 팀이 2차로 격돌하는 2라운드(팀당 4경기)는 내년 3월26일 한국-카타르, 우즈벱키스탄-레바논 경기로 막을 올려 6월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B조 중간순위

13일(한국시간) 현재

A조						
순위	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한국	2	0	0	+6	6
2	이란	1	1	0	+1	4
3	카타르	1	1	1	-2	4
4	우즈벱키스탄	0	1	1	-1	1
5	레바논	0	1	2	-4	1

B조						
순위	팀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1	일본	2	1	0	+9	7
2	이라크	0	2	0	0	2
3	호주	0	2	0	0	2
4	오만	0	2	1	-3	2
5	요르단	0	1	1	-6	1

한국팀 경기일정

1차전(원정): 2012.6.9	대 카타르전(1:4 승)
2차전(홈): 6.12	대 레바논전(3:0 승)
3차전(원정): 9.11	대 우즈벱키스탄전
4차전(원정): 10.16	대 이란전
5차전(홈): 2013.3.26	대 카타르전
6차전(원정): 6.4	대 레바논전
7차전(홈): 6.11	대 우즈벱키스탄전
8차전(홈): 6.18	대 이란전

자료/FIFA /연합뉴스

레바논전 2골 ... ‘포스트 박지성’ 김보경 시대 활짝

한국 3-0 승 2연승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제2의 박지성’으로 불리는 김보경(23·세레소 오사카)의 맹활약을 앞세워 2연승을 질주했다.

한국은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최종예선 A조 2차전에서 전반과 후반에 1골씩을 터뜨리며 절정의 골감각을 뽐낸 김보경과 경기 종료 직전 추가골을 넣

은 구자철의 활약으로 레바논을 3-0으로 물리쳤다.

전반 29분 최종예선이 시작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김보경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 일본프로축구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는 김보경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올려준 이근호의 크로스를 골문 정면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레바논 골키퍼 지아드 엘 사마드가 손으로 막아 보았지만

볼은 크로스바 아랫부분 골문으로 굴러 들어갔다. 김보경의 A매치 14경기 만에 나온 첫 번째 골이었다. 골맛을 본 김보경은 후반 시작 3분 만에 또 한 번의 그림 같은 득점을 만들어냈다. 역습 패스를 받은 김보경은 하프라인에서 상대 골문까지 단숨에 치고 들어가 왼발로 가볍게 추가골을 넣어 ‘제2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활약을 펼쳤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인 후반 44분에 구자철은 레바논 수비수가 어설픔게 걷어낸 볼을 왼발로 차넣어 해골골을 기록하며 3-0 승리를 완성했다. /연합뉴스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아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1등 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www.geumsoojang.com